

#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자기역량지각의 매개효과

윤명희, 김순혜  
가천대학교

##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perceived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Myoung-hee Youn, Soon-hye Kim  
Ga Ch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자기역량지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있는 중학교 1학년 413명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 자기역량지각, 분노표현양식을 측정하였고 SPSS 20.0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내현적 자기애는 자기역량지각의 하위요인 모두와 부적상관을 보이고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과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 사이에서 역량지각의 하위요인인 신체외모와 품행역량 그리고 사회적 수용도와 운동역량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는 내면의 취약한 자기로 인해 자기에성향을 보일 수 있는 중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순기능의 분노표현으로 적응적인 생활을 위하는데 건강한 자기애 발현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그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내현적 자기애, 자기역량지각,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 분노표출, 분노억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perceived competence on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collected from the questionnaire was analyzed by using the SPSS 20.0 program.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covert narcissism has statistically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to self-perceived competency. It also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to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Secondly,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rel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was partially mediated by ‘physical appearance’, ‘behavioral conduct’, ‘social acceptance’ and ‘athletic ability’ competencie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ignificant for providing the basic data fo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who have narcissistic tendencies due to a weak inner-self as well as helping their adaptational relationship through functional anger expressions.

**Key Words** : Covert Narcissism, Self-perceive Competence, Dysfunctional Anger Expression, Anger-Out, Anger-In.

Received 31 March 2016, Revised 29 April 2016  
Accepted 20 May 2016, Published 28 May 2016  
Corresponding Author: Soon-hye Kim(Gachon University)  
Email: soonhye@gachon.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건강한 자기애란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도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나친 자기중심으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오만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어렵게 해 따돌림의 이유가 되고 이러한 태도가 반복될 때는 좌절감과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으로 부적응적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 사회문화는 집단보다 개인의 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자기애적 행동양식을 더욱 촉발하고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중심적 행동으로 타인을 불편하게 하거나, 반대로 자기애성향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자기애는 성격장애의 특성을 구체화하면서 임상적 진단 목적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자기애의 발달 초기에 자기상이 손상될 경우 자기 보호를 위한 회피과정에서 이상화된 거대자기가 웅대한 자기개념을 형성하고 이것이 자기중심성으로 외현화하는 병리적 관점을 뜻한다[1]. 이후, 자기애 발달과정에서 적절한 조건이 제공되어 성숙 발달단계를 거치게 되면 긍정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개인의 성격 특성으로 보았고[2], 자기애를 성격특질로 보게 되면서 점차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었다[3].

자기애는 거대자기 환상, 특권의식, 자만심, 타인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설명하나 웅대하면서 취약한 자기개념을 핵심특성으로 보고 있다[4]. 그로 인해 자기애성향자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부족하고 불쾌감을 발생시켜 단절과 고립을 초래하는 자기중심적인 성격특성을 나타낸다[1]. 자기애는 상이하게 표현되는 현상에 의해 두 범주로 나누는데 오만한 자기 과시적인 태도를 겉으로 나타내는 경향을 외현적 자기애로, 자신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불안해하고 소심함과 불안정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은 내현적 자기애로 구분한다[5].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웅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으나 타인의 평가에 과민하여 쉽게 수치심을 느끼고 수줍음에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불편해하며 거절이나 모욕에 대한 두려움으로 위축된 행동 양상을 드러낸다[2,6]. 또, 내현적 자기애는 외현적 자기애보다 자존감이 낮고 우울과 공격성은 높으며 자기개념이 부정적이고 명료하지 않아 자기평가에서도

부정적이다[7,8]. 그로 인한 주관적인 불편감이 더욱 가중되므로 외현적 자기애보다 훨씬 역기능적으로 본다[7,9].

특히,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자기평가에서 자기애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고 자기애 발달이 병리적으로 치우칠 수 있어 자기애적 취약성을 극복해야 하는 중요 변화 시점으로 보고 있다[10,11].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는 심리적인 불안정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분노 같은 내적 감정의 통제가 어려워 자신의 의사와 욕구가 좌절될 때는 부적절한 표현과 공격 행동으로 분노를 발산하는 발달특성을 보인다[12]. 억압되었던 분노가 어느 순간 폭발하면 보다 공격적이고 극단적이 될 뿐만 아니라[4], 청소년 비행이나 또래 괴롭힘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13]. 무엇보다도 중학생은 집단 구성원과 바람직한 의사소통으로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연대 의식을 학습하는 시기에 해당되어 또래 관계에서 이런 부적응적인 표현양식이 학습될 때는 반복과 지속성으로 공격적 방식의 행동이 강화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14]. 이는 청소년기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따른 문제행동이 성인기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15]을 지지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분노 정서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을 관련짓고 있다[14]. 특히, 분노와 관련된 연구들은 개인의 분노 경험보다 분노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16]. 분노표현양식은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행동적인 차원의 개인 대응방식으로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조절로 구분하고 있다[17]. 이 중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는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으로, 분노조절은 기능적 분노표현양식으로 다시 세분한다[18]. 그리고 분노경험 수준이 비슷할지라도 분노표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다른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4].

청소년의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기애, 완벽주의, 자기개념 명확성, 자존감, 사회적 지지, 귀인양식, 분노수준, 비합리적 신념 등이 있다<sup>1)</sup>. 특히,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은 대인관계 문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또래 관계 영향력이 큰 중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적용에 저해되는 심리내적 위험요인으로 본다[19]. 그러므로 성인기 부적응의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이로 인한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대한 개입은 더욱 필요할 것이다.

1) 권석만, 한수정(2000). 자기애적 성격장애. 서울: 학지사.

한편, 자기애성향에서 과장된 자기개념은 때로는 높은 자존감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개념은 오히려 부정적이고 불안정한 비합리적 신념 상태로 위장된 방어적 자존감으로 본다. 선행연구에서도 자기애성향자들은 자존감을 위협받았다고 생각할 때 통제집단보다 자기에 특성이 두드러졌고 부정적 정서의 분노가 더욱 발생되었다[20]. 특히,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자기개념의 명료성이 낮아 외현적 자기애성향자보다 자기개념의 취약성을 더욱 반영하고 자존감을 유지하고자 위협 상황을 아예 회피하거나 타인의 반응에 대한 과민한 탐색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21].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부정 판단의 총체적인 평가 의미로 자기개념, 자아지각, 자아가치감, 자아효능감 등의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자존감은 자기 가치에 대한 정도를 반영하는 정의적 평가의 개념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며 안정성을 함의한다. 이에, Harter는 청소년의 자존감은 발달과 적응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행동, 동기, 성취 및 사회적 관계 등 전반적인 영역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에 대한 평가는 사회화 과정에서 성공·실패 경험에 따라 역량판단을 토대로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이면서 위계적으로 수행할 것을 주장하였다[22]. 특정 영역의 상호작용에서 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능력정도를 지각하는 것은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자존감의 개념에서 분화된 학업, 사회적 수용도, 운동, 신체외모, 품행역량 5요인을 자존감의 하위요인으로 제시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영역인 자존감과 구분 지었다. 그리고 청소년의 자존감 증진은 하위요인을 통해 더욱 용이할 것으로 보았다[23].

역량지각과 자존감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들도 역량지각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혀 주었다[24]. 역량지각과 자존감의 개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라는 공통적 의미에서 그 경계가 다소 모호할 수 있으나 자존감은 긍정 혹은 부정감정을 담고 있는 판단적 개념이고 역량지각은 긍정이나 부정감정을 담지 않은 영역별 역량에서 자신의 지각수준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24]. 그러므로 자존감의 결정요인으로 역량지각의 하위요인들과 자아 가치감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측정해야 한다[25]. 특히, 중학생은 자아의식의 발달이 촉진되는 시기로 안정적인 자존감을 위한 노력을 더욱 필요

로 하고[24],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유지하고자 또래와의 비교를 통해 영역별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25].

그뿐만 아니라 자존감은 인간행동의 동기적 요소로 개인의 적응과 성격발달에 중요하며 우울, 분노 등 청소년의 부정정서와 관련이 높아 청소년 비행의 조절요인이기도 하다[25]. 자존감이 높을수록 분노반응을 조절하고 충동적인 분노표출과 필요 이상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감소되었으며, 자존감이 낮을수록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은 증가하였다[26]. 자존감을 매개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자존감이 낮고 부정적인 자기개념을 가지며 이러한 자기 확신 부족은 주관적 불편감과 낮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9]. 이러한 결과는 열등감, 자기의심, 자신의 비판에 대한 민감성과 같은 내현적 자기에 특성으로 인해 자기평가를 부정적으로 한다는 임상연구를 지지하며[6], 내현적 자기애성향자는 자존감을 통해 관계적 공격성 또는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27]. 그 외, 청소년의 자존감이 내현적 자기에와 긍정적 또래관계 사이에서 완전 매개를 나타내[28], 내현적 자기가 자존감을 통해 긍정적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보아 취약한 자기개념을 특성으로 하는 내현적 자기애성향의 중학생은 일반 청소년보다 더욱 부적응적인 생활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내현적 자기에 자존감, 분노표현양식, 또래관계, 공격성, 사회적 상호작용 등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애성향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는데 자존감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성향의 청소년은 발달단계에서의 심리적인 불안정과 취약한 자기개념으로 가치기준이 명료하지 않아 건강한 자존감 형성에서 어려움이 더욱 커 부적응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도 내현적 자기에와 자존감, 분노, 공격성, 대인관계 등의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애성향이 높을 때 강한 분노감과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을 뿐 자기애성향자의 자존감 증진을 위한 변인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다차원적 자아체계를 근거로 하는 Harter의 역량지각은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 중학생의 발달 단계에서 불안정한 자기개념으로 인한 자기애성향의 문제에 긍정적으로 관여할 요인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기역량지각의 하위요인들이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중재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자기역량지각, 분노표현양식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자기역량지각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간 변동으로 적응을 위한 심리적 활동이 크고 자기애성 취약함이 나타나는 청소년 시기에 해당되는 중학교 1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소재하는 3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4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이중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응답 21부를 제외한 413명의 결과를 최종 분석에 사용했다. 전체 유효 표집대상 중 남학생은 213명(51.6%), 여학생은 200명(48.4%)이었다.

### 2.2 연구도구

#### 2.2.1 내현적 자기애 검사

Ahktar와 Thompson<sup>2)</sup>[6]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강선희와 정남운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내현적 자기애척도(Co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했다[29]. 5개 하위요인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의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강선희와 정남운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이었다.

#### 2.2.2 자기역량지각 검사

Harter가 제작한 Self-Perception Competency for Children(SPCC)을 박영애<sup>3)</sup>가 변안한 것을 사용했다. 이

검사는 학업, 사회적 수용도, 운동, 신체외모, 품행, 전반적 자아가치감의 6개 영역에서 각 6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위 요인 순으로 .78, .72, .78, .80, .61, .78을 나타냈다.

### 2.2.3 분노표현양식 검사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sup>4)</sup>를 한국판으로 개발한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C. D.(1997)의 척도(STAXI-K: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Korean version)<sup>5)</sup>를 사용하였다. 분노경험과 분노표현의 총 44문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노의 경험보다 경험한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확인하고자 분노표현양식에 초점을 맞추어 분노표출 · 분노억제 · 분노조절의 요인별 각 8문항씩 총 2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 점수의 합산을 산출해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분노표현양식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전경구와 한덕웅 그리고 이장호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위 하위요인 순으로 .73, .78, .79였고, 본 연구에서는 .80, .80, .78을 나타냈다.

###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를 확인했다. 둘째, 주요변인들의 전체적인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기술통계와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셋째, 매개효과의 확인을 위해 Baron과 Kenny<sup>6)</sup>[30]가 제안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으로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4)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Ed). Individual difference, stress and health psychology. N.Y.: Springer-Verlag.

5)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C. D. (1997). 한국판 STAXI-K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 건강, 2(1), 60-78.

6)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2) Akhtar, M. D.,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3) 박영애(1995). 부모의 양육 행동 및 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Table 1> Correlation of Covert Narcissism with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Anger Expression

(N=413)

		1	2	3	4	5	6	7	8	9	10
1. Covert narcissism											
Self-perceived Competence	2.Scholastic excellence	-.35**									
	3.Social acceptance	-.42**	.25**								
	4.Athletic ability	-.26**	.17**	.35**							
	5.Physical appearance	-.46**	.36**	.30**	.31**						
	6.Behavioral conduct	-.42**	.42**	.22**	.11*	.37**					
	7.Overall self-worth	-.62**	.47**	.41**	.29**	.70**	.57**				
	Anger Expression	8.Anger-out	.28**	-.09	.05	-.01	-.22**	-.41**	-.24**		
9.Anger-in		.58**	-.19**	-.37**	-.27**	-.34**	-.30**	-.42**	.46**		
10.Anger-control		-.08	.16**	.01	-.00	.17**	.33**	.19**	-.30**	.03	
	M	2.33	2.66	2.89	2.70	2.59	2.89	1.98	2.89	2.01	2.55
	SD	.71	.63	.63	.68	.70	.47	.59	.58	.60	.57
	Skewness	.37	-.03	-.48	-.02	-.24	.05	-.04	.69	.48	.17
	Kurtosis	-.33	-.28	-.00	-.53	-.50	-.12	-.41	.19	-.25	-.29

\* $p < .05$ , \*\* $p < .01$

### 3. 연구결과

#### 3.1 내현적 자기에, 자기역량지각, 분노표현양식의 관계

내현적 자기에, 자기역량지각, 분노표현양식의 관련성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01에서 내현적 자기에는 자기역량지각의 하위요인 모두와 유의미한 부적상관( $r = -.26 \sim -.62$ )을 나타냈고 분노표현양식의 분노표출( $r = .28$ ) 및 분노억제( $r = .58$ )와는 정적상관을 보였으나, 분노조절과는 상관하지 않았다.

자기역량지각의 상관결과로는 역량지각 5요인이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정적상관( $r = .29 \sim .70$ )이 있고, 신체외모역량과 품행역량 그리고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분노표출과 유의하게 부적상관( $r = -.22 \sim -.41$ )을 나타냈다. 또, 역량요인들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분노억제와 유의하게 부적상관( $r = -.19 \sim -.42$ )을 나타냈고 학업, 신체외모, 품행역량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분노조절과 유의하게 정적상관( $r = .16 \sim .33$ )을 나타냈다. 특히 신체외모역량, 품행역량,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와 부적인 상관이 있고 분노조절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여 분노표현양식 모든 요인과 상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 내현적 자기에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자기역량지각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ey가 제안한 3단

계 절차를 따라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했다[30]. 매개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표준화된 베타 값이 2단계보다 감소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했고, 그 결과 Z의 절대 값이 -1.96 이하, +1.96 이상의 범위에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 3.2.1 내현적 자기에와 분노표출의 관계에서 자기역량지각의 매개효과

내현적 자기에와 분노표출의 관계에서 역량지각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학업, 사회적 수용도, 운동, 신체외모, 품행의 역량들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에 내현적 자기에를 투입하고 종속변수에는 매개변수(학업, 사회적 수용도, 운동, 신체외모, 품행, 전반적 자아가치감)를 투입해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수행했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에 내현적 자기에를 투입하고 종속변수에는 분노표출을 투입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에 내현적 자기에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고 종속변수에는 분노표출을 투입하여 학업, 사회적 수용도, 운동, 신체외모, 품행, 전반적 자아가치감의 매개변수별로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공차한

<Table 2>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perceived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Anger-out (N=413)

Mediating variable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eta$	t	R <sup>2</sup> (adj R <sup>2</sup> )	F
Physical appearance	1	Covert narcissism	Physical appearance	-.462	-10.550***	.213(.211)	111.310***
	2	Covert narcissism	Anger-out	.278	5.878***	.078(.075)	34.554***
	3	Covert narcissism Physical appearance	Anger-out	.223 -.120	4.201*** -2.251*	.089(.084)	19.983***
Behavioral conduct	1	Covert narcissism	Behavioral conduct	-.421	-9.411***	.177(.175)	88.562***
	2	Covert narcissism	Anger-out	.278	5.878***	.078(.075)	34.554***
	3	Covert narcissism Behavioral conduct	Anger-out	.127 -.359	2.588* -7.297***	.184(.180)	46.093***
Social acceptance	1	Covert narcissism	Social acceptance	-.416	-9.287***	.173(.171)	86.257***
	2	Covert narcissism	Anger-out	.278	5.878***	.078(.075)	34.554***
	3	Covert narcissism Social acceptance	Anger-out	.363 .202	7.079*** 3.941***	.111(.107)	25.656***

\* $p < .05$ , \*\*\* $p < .001$

계와 분산팽창요인(VIF) 값과 Durbin-Watson 지수로 다중공선성과 자기상관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확인을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로는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표출의 관계에서 자기역량지각의 하위 요인 중 신체외모역량과 품행역량의 매개효과가 검증됐고 학업, 사회적 수용도, 운동의 역량들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유의한 결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Table 2>로 제시하였다.

먼저 신체외모역량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단계별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값이 모두 유의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변수인 신체외모에 미치는 영향력( $\beta = -.462, p < .001$ )은 유의하고 21.3%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내현적 자기애가 종속변수인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력( $\beta = .278, p < .001$ )도 유의하였으며, 7.8%를 설명하고 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내현적 자기애가 종속변수인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의 베타 값은 2단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beta = .223, p < .001$ ), 매개변수인 신체외모도 종속변수인 분노표출에 유의하게 기여( $\beta = -.120, p < .05$ )하고 있어 매개효과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3단계에서의 설명력은 8.9%를 나타냈다. 통계적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수행한 Sobel 검증 결과에서도 유의한 값( $Z = 3.870, p < .001$ )을 보여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표출에서 신체외모역량의 부분매개역할이 검증됐다.

품행역량의 매개검증에서도 단계별로 회귀모형식의 유의한 F값이 확인되었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변수인 품행에 미치는 영향력( $\beta = -.421, p$

$< .0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17.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내현적 자기애가 종속변수인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력( $\beta = .278, p < .001$ )은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을 7.8% 나타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내현적 자기애는 2단계보다 종속변수인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의 베타 값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beta = .127, p < .05$ ), 매개변수인 품행도 종속변수인 분노표출에 유의하게 기여( $\beta = -.359, p < .001$ )하고 있어 매개변수인 품행역량의 매개조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3단계에서의 설명력은 18.4%를 나타냈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한 Sobel 검증 결과( $Z = 2.506, p < .001$ )에서 Z의 절대 값은 1.96이상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표출에서 품행역량의 부분매개역할은 검증되었다.

한편, 사회적 수용도역량은 회귀모형식의 적합도를 보여주는 F값과 변인 간 영향력의 t값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된 베타 값이 3단계( $\beta = .363$ )에서 2단계( $\beta = .278$ )보다 감소하지 않아 매개효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매개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 3.2.2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자기역량지각의 매개효과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역량지각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학업, 사회적 수용도, 운동, 신체외모, 품행의 역량들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에 내현적 자기애를 투입하고 종속변수에는 매개변수(학업,

<Table 3>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perceived Compet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Anger-In (N=413)

Mediating variable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eta$	t	R <sup>2</sup> (adj R <sup>2</sup> )	F
Social acceptance	1	Covert narcissism	Social acceptance	-.416	-9.287***	.173(.171)	86.257***
	2	Covert narcissism	Anger-In	.580	14.424***	.336(.334)	208.062***
	3	Covert narcissism Social acceptance	Anger-In	.516 -.152	11.837*** -3.492**	.355(.352)	112.960***
Athletic ability	1	Covert narcissism	Athletic ability	-.255	-5.350***	.065(.063)	28.625***
	2	Covert narcissism	Anger-In	.580	14.424***	.336(.334)	208.062***
	3	Covert narcissism Athletic ability	Anger-In	.547 -.130	13.292*** -3.162**	.352(.349)	111.308***

\*\*p< .01, \*\*\*p< .001

사회적 수용도, 운동, 신체외모, 품행, 전반적 자아가치감)를 투입해 각각 단순회귀분석을 수행했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에 내현적 자기애를 투입하고 종속변수에는 분노억제를 투입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에 내현적 자기애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고 종속변수에는 분노억제를 투입하여 학업, 사회적 수용도, 운동, 신체외모, 품행, 전반적 자아가치감의 매개변수별로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VIF) 값과 Durbin-Watson 지수로 다중공선성과 자기상관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통계적인 매개효과의 유의성 확인을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로는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자기역량지각의 하위 요인 중 사회적 수용도와 운동역량의 매개효과가 검증됐고 학업, 신체적 외모, 품행의 역량들과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유의한 결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3>으로 제시했다.

먼저, 매개효과를 보인 사회적 수용도역량을 살펴보면 단계별 회귀모형식의 F값이 모두 유의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변수인 사회적 수용도에 미치는 영향력( $\beta=-.416, p <.001$ )이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17.3%를 보여주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내현적 자기애가 종속변수인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력( $\beta=.580, p <.001$ )도 유의하였으며, 33.6%를 설명하고 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내현적 자기애가 종속변수인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베타 값이 2단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beta=.516, p <.001$ ), 매개변수인 사회적 수용도가 종속변수인 분노억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beta=-.152, p <.01$ ) 있어 매개효과의 조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3단계에서의 설명력은 35.5%를 나타냈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Sobel 검증 결과

(Z=3.870,  $p <.001$ )에서도 Z의 절대 값이 1.96 이상으로 기준에 적합해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억제에서 사회적 수용도역량의 부분매개역할을 입증했다.

운동역량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단계별 회귀식에서 F값은 모두 유의하게 적합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내현적 자기애가 매개변수인 운동에 미치는 영향력( $\beta=-.255, p <.001$ )은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6.5%를 나타냈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내현적 자기애가 종속변수인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력( $\beta=.580, p <.001$ )도 유의하였으며 33.6%를 설명해주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내현적 자기애는 종속변수인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의 베타 값이 2단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beta=.547, p <.001$ ), 매개변수인 운동이 종속변수인 분노억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beta=-.130, p <.01$ ) 있어 매개효과의 조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3단계에서의 설명력은 35.2%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통계적인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해 수행한 Sobel 검증(Z= -5.41,  $p <.001$ )에서도 Z값이 -1.96 이하, +1.96이상의 범위에 존재하므로 매개효과는 유의하다고 할 수 있으며 운동역량의 부분매개역할이 입증되었다.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관계에서 자기역량지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내현적 자기애, 자기역량지각, 분노표현양식의 상호관련성을 알아보았고, 내현적 자기애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과의 관계에서 자기역량지각의 하위요인별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에 비추어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해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내현적 자기에, 자기역량지각, 분노표현양식 간의 단순상관을 분석한 결과 내현적 자기에는 자기역량지각의 5요인 및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유의하게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아울러 내현적 자기에는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와는 정적상관이 있고 분노조절과는 상관이 없어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과 관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성향이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과 정적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16]. 이로부터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내현적 자기에성향의 중학생은 열등감을 감추고 자존감을 유지하고자 역기능적인 분노표현양식을 사용할 것으로 보여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자기역량지각 요인들 모두 전반적 자아가치감과 유의하게 정적상관을 보인 결과는 역량지각과 자존감이 정적상관을 갖는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24, 31]. 또,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분노표현양식 모두와 상관이 있는 결과는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상관이 있고[31],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자존감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32]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전반적 자아가치감은 정서 및 분노표현과 관련되어 중학생의 적응적 생활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상관결과를 종합하면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자기역량지각 및 역기능적 분노표현과 상관이 있고, 자기역량지각은 자존감과 상관이 있어 중학생의 취약한 자존감과 관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기역량지각은 내현적 자기에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사이에서 중재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둘째, 내현적 자기에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사이에서 자기역량지각 하위요인들의 매개효과 검증결과로는 내현적 자기에와 분노표출의 관계에서 자기역량지각의 하위요인 중 신체외모와 품행역량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성향이 높을수록 분노표출도 증가하는데 자신의 신체외모에 대한 만족감이나 기대치에 적합하다고 지각하는 자신의 행동방식에 따라 분노표출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중학생의 공격성 예측에서 자기역량지각의 하위요인 중 품행역량이 가장 높은 요인임을 밝혀준 연구결과와 맥락적 해석이 가능하다

[33]. 또, 내현적 자기에성향의 중학생은 자기중심적인 특성으로 타인들과 원만한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나 표현 부족으로 적응적 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체외모에 대한 자신감과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관찰 적용하는 태도를 습관화시킨다면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도 객관성을 부여하여 부적응적인 분노표출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성향의 영향력은 완화될 것이다.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에와 분노억제의 관계에서 자기역량지각 중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된 사회적 수용도역량과 운동역량을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에가 분노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수용도역량 또는 운동역량을 투입했을 때 분노억제에 대한 내현적 자기에의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사회적 수용도 측정 문항들은 친구 관계 또는 자신의 인기도와 같은 친구와의 상호작용 정도를 묻고 있다. 그러므로 내현적 자기에와 분노억제의 사이에서 사회적 수용도역량의 매개효과는 내현적 자기에성향의 중학생들이 친구관계를 원만하다고 지각할수록 분노를 억제하려는 경향에 영향을 미쳐 심리내면에 분노감을 쌓아두지 않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역량지각이 높은 집단에서는 긍정적 친구관계의 질적인 측면을 많이 보이고 역량지각이 낮은 집단에서는 부정적 친구관계를 보이며 [34], 친구 관계가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친다[35] 연구들과 함께 중학교 시기의 친구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확인시켜준 결과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자기에성향의 중학생이 학습활동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또래의 반응을 과민하게 느껴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교사의 세심한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의 제시[36]와 중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부모의 융합적인 양육태도와 같은 사회적인 지지도 필요할 것이다[37]. 또, 운동역량의 매개효과 의미는 다양한 신체활동으로 인한 만족감이 분노를 억제하려는 내현적 자기에성향을 승화시켜 부정정서 감소를 촉진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가 운동역량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내현적 자기에성향이 높은 중학생은 운동욕구가 낮아 협동 활동을 기피하여 자신의 역량에 대한 정도를 지각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직접 또는 간접의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의 문제행동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에 대



응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가 역량지각의 하위요인들을 통해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 주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내면의 취약한 자기로 인해 자기애성향을 보일 수 있는 중학생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 자기역량지각을 통하여 역기능적 분노표현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성향의 완화로 적응적인 생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Harter의 다차원적 자아체계를 근거로 자기역량지각 요인들을 통해 변인 간의 관련성을 측정하였으나 다차원적인 관련성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계적인 검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척도들은 외국의 척도를 번안하여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으므로 변화하는 문화를 반영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발달단계별로 타당화한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3개 중학교 1학년 집단만을 표집대상으로 하였기에 이 결과를 모든 중학생에게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성별, 학교 급간, 지역 간의 차이 검증을 위한 표집대상의 확대 및 심도 있는 횡적·종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자기애, 자존감, 분노표현양식은 모두 사회적 요구와 관련되는 개인의 특성들로 개인성향의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서는 요구받는 요인들을 통제하는 연구 설계와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Kernberg, O. F,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Y.: Jason Aronson. 1975.
- [2] Kohut, H,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Y.: Int. Univ. Press, 1977.
- [3] Raskin, R., & Terry, H, "A principal-component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No. 54, pp. 891-902, 1988.
- [4] Seung-Hye Back, Myung-Ho Hyun, "Hotsitility, anger experience and anger expression in overt and covert narcissis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7, No. 4, pp. 1001-1017, 2008.
- [5] Wink, P, "Two face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1, No. 4, pp. 590-597, 1991.
- [6] Akhtar, M. D., & Thomson, J. A,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139, No. 1, pp. 12-20, 1982.
- [7] Se-ran Park, Min-Sub Shin, Hoon-Jin Lee, "Self-evaluations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overt-covert narcissist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4, No. 2, pp. 465-474, 2005.
- [8] Jun-Deuk Lee, Su-Gyun Seo, Hoon-Jin Lee, "Self-concept clarity and negative emotion in young adults with covert-overt narcissistic feature",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6, No. 2, pp. 463-477. 2007.
- [9] Rose, P,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3, No. 3, pp. 379-391, 2002.
- [10] Bleiberg, M. D, "Normal and pathological narcissism in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 48, No. 1, pp. 30-51, 1994.
- [11] Kohut, H. & Wolf, E. S, "The Disorders of self and their treatment: An Outline(In Essential papers on Narcissism)", pp. 175-196, 1978.
- [12] Ji-Hyun An, Seung-Yeon Lee, "The relations among covert narcissism, shame, anger, and reactive aggression, focusing on the role of 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6, No. 1, pp. 61-84, 2013.
- [13] Ji-Young Park, "Understanding peer in boys and girls: its relationships with stress, anger, and coping victimization effects of self-esteem", Institute for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2010.
- [14] Kyeong-Sun Park, Hyuk-Jun Moon, "The influ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fectionism, family

- strengths,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upon anger expression style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 20, No. 3, pp. 57-80, 2013.
- [15] Eron, L. D,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from the perspective of a developing behaviorism”. *American Psychologist*, Vol. 42, No. 5, pp. 435-442, 1987.
- [16] Hye-Ran Lee, Hye-Young Hong, “The mediating effects of anger rumin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anger expres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 10, No. 2, pp. 43-56, 2012.
- [17] Spielberger, C. D., Reheiser, E. C. & Sydman, “Measuring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H. Kassinover(Ed). *Anger Disorder: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pp. 1-26). Tatlor & Francis. 1995.
- [18] Gottlib, M. M., *The angry self: “A comprehensive approach to anger management”*. Phoenix, Arizona: Zeig, Tuchker & Co. Press, 1999.
- [19] Ji-Young Choi, Young-Soon Lee, “The influences of covert narcissism, anger expression styles and empathic ability on interpersonal problems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 21, No. 1, pp. 77-95, 2014.
- [20] Su-Gyun Seo, Seok-Man Kwon, “The relation among irrational beliefs, automatic thoughts and anger”,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4, No. 2, pp.327-339, 2005.
- [21] Jun-Deuk Lee, “Anger in young adults with covert and overt narcissistic tendencies”, Institute for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4.
- [22] Harter, S,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No, 53, pp. 87-97, 1982.
- [23] Harter, S,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Revision of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University of Denver, 1985.
- [24] Ja-Yong Min, “Effects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of adolescents: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Institute for Educational Studies, Ph.D. dissertation, Anyang University, 2010.
- [25] Soon-Hye Kim, “The determinants of general self-esteem in adolescents: The influences of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 17, No. 4, pp. 1-18, 2010.
- [26] Su-Gyun Seo, Seok-Man Kwon, “Relations of self-esteem and narcissism with aggressivenes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1, No. 4, pp. 809-826, 2002.
- [27] Woo-bin Noh, Hye-Young Hong,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on relational aggression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ion effect analysis of self-esteem and social anxiety”, *Korea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Therapy*, Vol. 7, No. 2, pp. 81-102, 2015.
- [28] Jung-Hee Hwang, “The influence of teenager’s covert narcissism on peer relationship: Mediated by effect of self-esteem”, Institute for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14.
- [29] Seon-Heui Gang, Nam-Woon Chu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vert narcissism scal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4, No. 4, pp. 960-990, 2002.
- [30]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1986.
- [31] Hyun-Ok Kim, “Effects of Children’s social Network on Self-Perceived Competence, Ego-Resilien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stitute for Educational Studies, Ph.D. dissert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2009.
- [32] Mi-Ae Park, Sei-Kyung Kim, Seong-Moon Cheon, “A Meta Analysis on the factors of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 Being”, *The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 20, No. 3, pp. 627-652, 2013.
- [33] Soon-Hye Kim, “Relation of inflated self-appraisal in competencies to aggression”, *The Korean Journal*

-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7, No. 1, pp. 133-148, 2003.
- [34] Hong-Suk Cheon, "Children's peer acceptance,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friendship quality", Institute for Child Welfare, In Ha University, 2009.
- [35] Nam-Ok Park, "Effects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of adolescents: Mediation effects of self-esteem", Institute for Educational Psychology, Hong Ik University, 2003.
- [36] Su-Young Lee, Mi-Sun Youn, Youn-geun Kim, "A Study on counselor's Professional Development Experience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rough Reflective Journal Writing",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43-56, 2015.
- [37] Mi-Seob Oh,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97-203, 2015.

윤 명 희(Youn, Myung Hee)



- 1984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학사)
- 2013년 2월 : 가천대학교 대학원(교육학 석사)
- 1984년 3월 ~ 현재 : 중등 교사
- 관심분야 : 심리, 상담
- E-Mail : yjhb88@hanmail.net

김 순 혜(Kim, Soon Hye)



- 1975년 2월 : 고려대학교 불문학과 (불문학 학사)
- 1986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 석사)
- 1991년 8월 :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1993년 3월 ~ 현재 : 가천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자존감, 공격성
- E-Mail : soonhye@gachon.ac.kr